



새로운 조경수 시다속⁹⁹ (Cedrus)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경남 창원시)

● 종류와 생육특성

소나무과(Pinaceae) 시다나무속(Cedrus)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입갈나무라고 부르는 히말라야시다(Hymalaya Cedar)와 레바논시다(Lebanon Cedar), 아틀라스시다(Atlas Cedar) 등 3종의 기본종이 있고 재배품종으로 황금 잎 히말라야시다, 은잎아틀라스시다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자생종이 없고 현재 외국에서 도입되어 조경용으로 식재되고 있는 것은 히말라야시다 단일수종뿐이고 1930년경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사일 | 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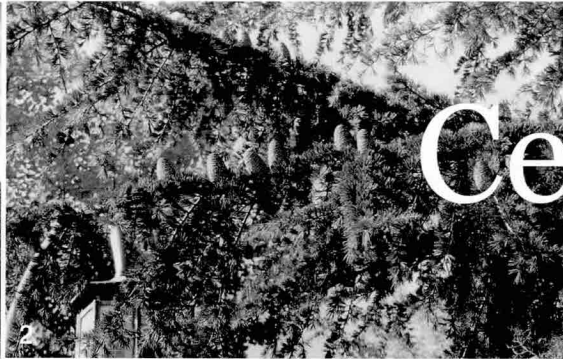
생육특성은 수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시다나무속의 보편적인 특성은 양수(陽樹)로 유시의 생장이 빠르고 맹아력이 왕성하고 내공해력과 내습력이 강한 반면 내한력, 내건력, 내염력이 약한 편이고, 개화습성은 자웅동주일가화(雌雄同株一家花)로 같은 나무에서 암꽃과 수꽃이 따로따로 피

며, 수꽃은 수령이 30년이 되기 전에도 피지만 암꽃은 수령 30년 이상된 나무에서만 피기 때문에 자웅이주(雌雄異株)로 착각하기 쉽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생육적지는 이상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대전 이남의 난온대지역으로 해변과 토심이 얇고 척박한 건조지역을 제외한다면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생육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표1〉 시다나무의 종류

국명	학명	일본명	영명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i>Cedrus deodara</i>	ヒマラヤシーダ	Himalaya Cedar(Deodar Cedar)
황금잎히말라야시다	<i>Cedrus deodara 'Aurea'</i>	オウコンヒマラヤシーダ	Golden Deodar
레바논시다	<i>Cedrus libani LOUD</i>	レバノンシーダ	Lebanon Cedar
아트라스시다	<i>Cedrus atlantica MANETT</i>	アトラスシーダ	Atlas Cedar
은잎아트라스시다	<i>Cedrus atlantica 'Glauca'</i>	ギンアトラスシーダ	Glauca Atlas Cedar



1. 히말라야시다 두절목
2. 히말라야시다 구과의 착생관경

〈표2〉 수종별 특성

수종명	가지와잎	꽃과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히말라야시다 (개잎갈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록침엽수교목으로 수고 30m, 직경1m 까지 자람(원산지에서는 수고 60m까지 자람) 수간은 통직하고 수피는 회갈색이며, 얇게 작은 조각으로 벗겨짐 수형은 고립목일 때는 넓은 원추형이고, 집단 식재목은 좁은 원추형이 됨 가지는 수평으로 길게 뻗으며 약간 아래로 처짐 잎은 짙은 녹색이고, 길이가 3~5cm되는 피침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은 10~11월에 피며, 수꽃은 황갈색의 원추형으로 피 암꽃은 연한 녹자색이며, 단지(短枝)에 위로 향하며 피 열매는 단지에 위로 향하여 달리며, 다음해 10~11월에 회갈색으로 익는다. 열매의 길이 7~10cm, 지름 6cm 내외의 타원형 구과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달리지만 종자의 충실율이 낮아 종자를 얻기가 어려움 1kg 당 종자 입수는 3,600개, 1kg당은 11,000개 정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 히말라야 지역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심이 깊고 비옥적윤한 산록부이하의 완경사지 및 평탄지에서 잘자람
황금잎 히말라야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특징은 히말라야시다와 같고, 잎이 황금색인 것이 다른점임 히말라야 실생묘양성에서 발견된 재배품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과 열매의 특징은 히말라야시다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품종 	
레바논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록침엽수교목, 수고 36m 직경 2m이상 자람 어린나무일 때는 수관폭이 좁고 수간이 통직함 장령 및 노령목은 거대하게 가지를 뻗어 수관의 상부가 편평하게 됨 질은 녹색의 침엽은 길이가 3.5cm 내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화 특성은 히말라야시다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바논, 터키 원산 서유럽, 영국에 식재 	
아트라스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록침엽수교목으로 수고 30m 이상 자람 유령기에는 가지가 위로 뻗어 멋진 피라밋형을 형성함 장령 및 노령기에는 큰 가지를 뻗어 수관폭이 넓고 수관의 상부가 편평해짐 조밀하게 착생한 잎의 길이는 2.5cm 이하임 잎의 색상은 짙은 녹색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화 특성은 히말라야시다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에 있는 사트라스산이 원산지임 	
은잎아트라스 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라우카(GLAUCA)란 사람이 발견하였다하여 품종명을 그라우카라고 부르고 있다. 길고 굵은 가지가 위로 뻗어 주간이 잘 구별되지 않음 잎의 색상이 흰 빛이 도는 회청색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식은 주로 접목으로 번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품종 	



●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히말라야시다는 수형이 아름다워서 세계 3대 조경수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대전 이남의 난온대지역에서 정원수, 공원수, 경관수, 기념수, 생울타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원시원하게 수평으로 길게 쪽쪽 뻗은 가지와 피라미트 모양으로 치솟은 장대한 수형은 풍요로운 녹색환경을 만끽하게 한다. 가로수, 생울타리 등과 같이 수형을 전지전정으로 꼭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 수형 그대로 보육하는 것이 좋다. 히말라야시다는 지상부에 비하여 뿌리가 약하여 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바람맞이에 고립목 상태로 식재하는 것은 피하도록하고 지하고(枝下高)가 높을수록 바람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지표면에 가까운 밑부분까지 가지를 착생시켜 지하고를 낮추어 주는 것이 좋다.



● 번식 및 양묘방법

번식은 보통종자로 번식하지만 삼목과 접목으로도 번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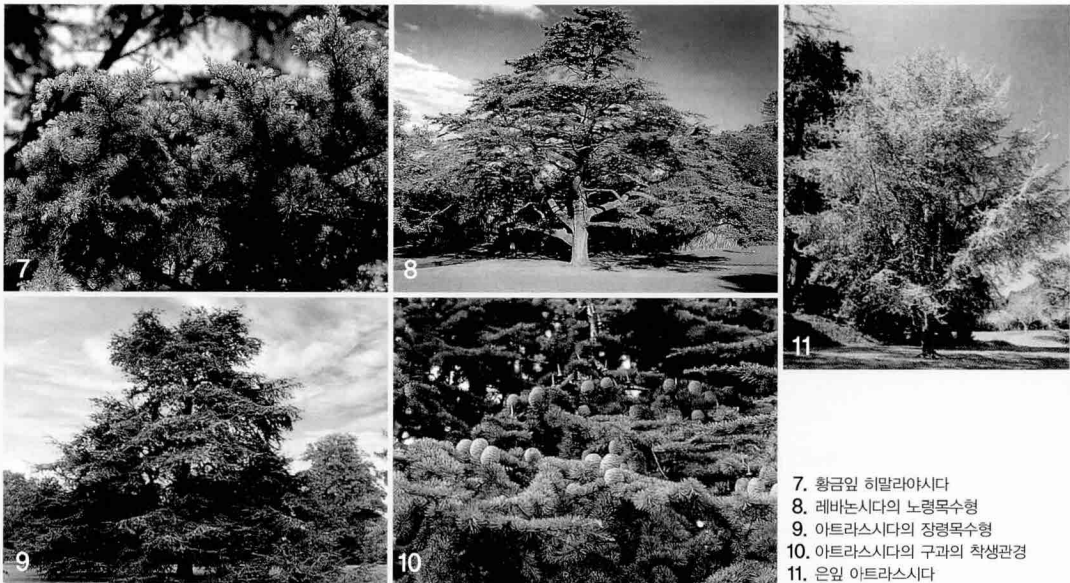
• **실생묘양성** : 우리나라에서는 히말라야시다의 구과가 30년 이상 되면 열리지만 종자가 충실하지 못하고 쪽정이가 되어 충실한 종자를 채취 할 수 없어 주로 외국에서 종자를 도입하여 양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확보한 종자는 밀봉하여 저온저장하여 두었다 4월에 m^2 당 280cc 또는 90g(약 1,000개)정도를 산파한다. 보통 발아율이 40%로 m^2 당 발아기대본수는 400본이고 득묘본수는 200본, 평균 묘고는 20cm 정도 된다. 특히, 파종상에서는 입고병(立枯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상같이 이식은 4월에 m^2 당 20본 정도로 하면 가을에 묘고가 40cm 정도 된다.

• **삼목 및 접묘양성** : 황금오히말라야시다, 은잎아트라스시다와 같은 특수수종의 번식은 주로 삼목 및 접목으로 양묘한다. 🌲



- 3. 히말라야시다 장령집단식재목수형 (경남 마산시 용마산공원)
- 4. 히말라야시다 장령고림목수형 (경남 창원시)
- 5. 히말라야시다 조형목
- 6. 레바논시디의 장령목수형(터키,곤야)

※ 7~11번의 사진은 "Botanica's Pocket(Trees & Shrubs)"에서 옮긴 것임



- 7. 황금잎 히말라야시다
- 8. 레바논시디의 노령목수형
- 9. 아트라스시디의 장령목수형
- 10. 아트라스시디의 구과의 착생관경
- 11. 은잎 아트라스시디